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Title: “Genesis 29 – Terah's descendants”****Scripture: Genesis 11:27-32****Date preached: July 19th 2026****Scripture: Genesis 11:27-32**

**27 This is the genealogy of Terah: Terah begot Abram, Nahor, and Haran. Haran begot Lot.
 28 And Haran died before his father Terah in his native land, in Ur of the Chaldeans.
 29 Then Abram and Nahor took wives: the name of Abram's wife was Sarai, and the name of Nahor's wife, Milcah, the daughter of Haran the father of Milcah and the father of Iscah.
 30 But Sarai was barren; she had no child.**

31 And Terah took his son Abram and his grandson Lot, the son of Haran, and his daughter-in-law Sarai, his son Abram's wife, and they went out with them from Ur of the Chaldeans to go to the land of Canaan; and they came to Haran and dwelt there. 32 So the days of Terah were two hundred and five years, and Terah died in Haran.

**27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28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말기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말기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Review – The toledat of Shem

In today's stud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genealogy of Terah, Abrams father. Now some of you may roll your eyes and sigh at the prospect of looking at yet another toledat. But this one is a short, and far more significantly it contains figures who will go on to play a prominent role in scripture. So what I'm saying is that for the most part Terah's “generation” is not just a list of people whose names feature only once in scripture.

When it comes to Terah we might describe him as standing at a hinge point in human history. In a very real sense he bridges the gap between the post-flood generations and the covenant people of God. We see that God is now moving away from working with mankind in general towards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a particular people through whom He would work. Terah is also the father of three men whose storylines continue to have resonanc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same cannot really be said for most of Shem's descendants. For many of the people listed in his family line we know little to nothing. Clearly they fathered children who impacted the world of their day. They may well have been powerful and significant people in their day. But as far as historic or biblical records go we have no details.

So let us now very briefly review the descendants who flowed from Shem to Abram.

This ten chain link of familial relations spans a period of 390 years (using the Masoretic chronology). For each person listed we are told three pieces of information. Firstly, we are told how old they were when they fathered their seed son of promise. Secondly we are informed of how long they lived after the birth of this special son. And finally we are told they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none of whom are explicitly named until we come to Terah.

We begin the toledat with Shem the son of Noah. He had his seed son of promise called Arphaxad when he was 100 years old. Arphaxad's special son was named Salah or Shelah. He was born when

Arphaxad was 35. When Salah was 30 he begot his seed son Eber. His name as I told you last week is the source for the word Hebrew. Eber's seed son of promise was Peleg. He was born when Eber was 35. Peleg's name means "divided." As I told you last week it probably means that he was alive at the time of the Tower of Babel incident. This as you will remember was when God divided the people by confusing the language. Peleg's seed son came along when he was 30 years old. His name was Reu. Reu in turn had his own seed son Serug when he was 35. At the age of 30 Serug had Nahor. He was to be Abram's grandfather. When he was 29 years old Nahor fathered Abram's father Terah. Terah, as I mentioned earlier would father three significant sons. The first of these was Haran. He was born when Terah was 70 years old. Abram came along 60 years later when Terah was 130. The third son was Nahor.

Today we are turning from the toledat of Shem to consider the generations of Terah.

복습- 셈의 족보

오늘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족보를 본다는 생각에 눈을 굴리면서 한숨을 내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짧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성경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라"세대"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단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데라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홍수 이후 세대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체 인류를 상대로 일하시던 것에서 벗어나 그분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데라는 또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세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셈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당대에 큰 영향을 미친 자녀들을 두었을 것이고, 당대에 강력하고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이나 성경 기록에는 그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셈에서 아브람으로 이어진 후손들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열 세대에 걸친 계보는 마소라 연대기를 기준으로 390 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각 인물에 대해 세 가지 정보가 주어집니다. 첫째, 약속의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 둘째, 그 특별한 아들을 낳은 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지 기록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입니다. 그는 100 세에 약속의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 세에 약속의 아들 살라 또는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는 30 세에 아들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 Hebrew 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에벨이 35 세였을 때 약속의 자손 벨렉이 태어났습니다. 벨렉의 이름은 "나누다"라는 뜻이고, 이는 아마도 그가 바벨탑 사건 당시 살아 있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사람들을 나누고 흩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벨렉이 30 세였을 때 약속의 자손 르우가 태어났고, 르우는 35 세에 아들 스룩을 낳았습니다. 스룩은 30 세에 나홀을 낳았는데, 그가 아브람의 할아버지가 될 인물입니다. 나홀은 29 세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를 낳았습니다. 데라는 세 명의 중요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첫째가 하란입니다. 데라가 70 세였을 때 하란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60 년 후 데라가 130 세였을 때 아브람이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들은 나홀이었습니다.

오늘은 데라의 족보를 살펴 보겠습니다.

27 This is the genealogy of Terah: Terah begot Abram, Nahor, and Haran. Haran begot Lot.

We turn now to the toledat of Terah. Terah is the ninth seed son of promise that came from the line of Shem. His great significance in God's redemptive plan comes from the fact that he was the father of Abram. God as we mentioned before is now shifting His emphasis from humanity as a whole to focus on one particular family. That will be the family of Abram.

We spoke last time about Terah's three sons; Abram, Nahor and Haran. Each of them would go on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ongoing biblical story. However Abram, later to be renamed Abraham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That is why his name is listed first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not Terah's firstborn son. That was Haran born when Terah was 70 years old. Haran we are told here was the father of Lot. This makes Lot Abram's nephew. There is a very important reason why Lot is mentioned at this particular point in the narrative. I'll explain why when we get to the next verse.

Now Lot as I'm sure many of you would agree is an interesting biblical character. He would make an interesting character study. He's mentioned 33 times in the Old Testament and 4 times in the New Testament (giving 37 total mentions). That makes him an important biblical figure. To put that in some kind of perspective the prophet Jonah appears 18 times in the Old and 9 times in the New (giving 27 total mentions).

Lot will feature in several notable incidents to come. I think that it's fair to say that he made some poor decisions in life some of which resulted in tragic outcomes. For example, we might look at what happened when he and Abram quarrelled about the land. Abram came to him and proposed a solution. They should part ways and Abram very generously said Lot could have first choice of where to settle. Lot made a very selfish decision to take the best land located near Sodom. He would later live to regret this choice when God destroyed this city resulting in the loss of all his possessions and most significantly his wife.

Shortly after this we have the incident involving a drunken Lot and his two daughters. Without doubt one of the bibles most depraved and deplorable stories (Gen 19).

Despite these questionable moral failings we should be aware that the New Testament calls Lot "righteous" (2 Peter 2:7-8). That's not something to overlook. The Bible's standard of human righteousness is God's own perfection in every attribute, attitude, behaviour, and word. That is a very high standard indeed. This means that Lot, despite his flaws feared the Lord and tried to live in obedience to Him. He is commended in particular for opposing the wickedness that prevailed in the city of Sodom. It cannot have been easy to stand against a whole city that was perverse and wicked. It demonstrates that Lot must have been a man of courage and conviction. It was this righteousness that led to God saving him and his family. So as I said an interesting character. I will have plenty more to say about Lot as we progress.

27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 나홀과 하란을 □ 하란은 롯을 □□□

이제 데라의 자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라는 셈의 족보에서 아홉 번째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가 아브람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전체에서 한 특정 가족, 즉 아브람의 가족을 택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훗날 아브라함 Abraham 으로 이름이 바뀌는 아브람 Abram 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데라가 70 세에 낳은 하란이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란은 롯의 아버지였고, 따라서 롯은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롯의 이름이 이 시점에 언급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롯은 대단히 흥미로운 성경 인물입니다. 그의 인물 연구는 매우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가 구약에 33 번, 신약에 4 번 (총 37 번) 언급된 사실을 보면 그가 중요한 성경적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예언자 요나는 구약에 18 번, 신약에 9 번 (총 27 번) 등장합니다.

롯은 앞으로 여러 중요한 사건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롯과 아브람이 땅 문제로 이견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가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브람은 두 사람이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지고 제안하면서, 관대하게 롯에게 그가 살 곳을 먼저 선택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대단히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 소돔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는 훗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그의 모든 재산과 아내까지 잃고 나서 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술 취한 롯과 그의 두 딸에 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비참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창세기 19 장).

롯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기록합니다(베드로후서 2: 7-8).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속성 □□, 행동, 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함입니다. 이는 참으로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의롭다 함은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돔 성에 만연했던 악에 맞선 그의 행동이 칭송 받아 마땅합니다. 온 도시 사람들의 타락하고 사악한 행동에 홀로 맞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롯이 용기와 신념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롯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창세기 설교를 진행하면서 롯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28 And Haran died before his father Terah in his native land, in Ur of the Chaldeans.

Haran we are told died before his father Terah. In some translation this is rendered in the “presence” of his father. Literally the meaning is that “he died in his father's face” (whilst his father was still alive). This was an unusual occurrence then as it still is today. Sadly children do at times die before their parents but this is certainly not the norm. Moses is recording this detail because it is necessary to explain Lot's situation. Lot you see now finds himself without a father. Abram would act in a fatherly way and take Lot under his wing. But it also meant that Lot had to step into his father's shoes and act as the head of that particular family line.

Haran died in the land of his birth, in Ur of the Chaldeans. This was not the place that the family were originally from. Most scholars believe that Terah came from the land of Haran and had moved to Ur in his youth. Terah's three sons Abram, Nahor and Haran were all born in Ur.

What do we know about Ur of the Chaldees? Well let's start with the name. Moses remember is writing a long time after these events have taken place. The people to whom he is writing knew that the area of Ur, southern Mesopotamia was the home of the Chaldean people. Hence the name Ur of the Chaldees. In Abram's time it would simply have been called Ur. Ancient Ur was the busy and prosperous capital of the Sumerian people. Clay documents uncovered in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of Ur paint a picture of an advanced and sophisticated culture.

The Royal Cemetery, uncovered by Sir Leonard Woolley (between 1922-1934), revealed opulent tombs filled with artefacts that speak to a society rich in artistry and social hierarchy. Included among the finds were a stunning array of gold helmets, crowns, and jewellery.

Excavations have shown that the city was surrounded by a city wall that was 8m tall and 25m wide. Ur was a port city located at the point on the Euphrates River which runs out into the Persian Gulf. This made it an important trade and commercial centre. It was well established and thriving by the time it is mentioned here in Genesis. Though some believe that the city had reached in zenith in Abram's time and was beginning to decline.

Some scholars propose this as the reason why Terah and his family wanted to leave. I'm not sure that we have enough evidence to draw such a conclusion.

People often wonder how populous ancient cities were. When it comes to Ur Archaeologists have made some estimates about the population of the city in Abrams time. Their excavations have discover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twenty houses per acre. Assuming the occupancy of each dwelling to be between six to ten persons that would mean there were around 120-200 people per acre. The city of Ur covered about 150 acres which using these density levels would mean it had a population of around 24,000 people.

We also know that the city was the hub for wicked pagan practices. Ur was believed to be the home of the moon god Sin also known as Nan-na. In fact the city's name is derived from the god's name. The cities name literally means the abode or home of Nan-na. The main temple to the moon god

was a ziggurat that was approximately 30m tall. Interestingly the city of Haran also had the reputation for being a major centre for the worship of Sin. I will speak more on this later.

28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를 "아버지 면전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게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모세는 롯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롯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브람이 롯을 아버지처럼 보살피 주었지만 동시에 롯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란은 그가 태어났던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르는 데라 가문의 원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라가 젊었을 때 하란땅에서 우르로 이주했다고 믿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은 모두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의 우르에 대해 살펴보까요? 우선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사건들이 있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글을 썼습니다.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우르 지역이 갈대아인들의 본고장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 도시를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단순히 우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번성했던 고대 도시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우르 유적 발굴에서 발견된 점토 문서는 당시 발달되고 세련되었던 문화를 보여줍니다.

레너드 울리 경이 1922년부터 1934년까지 발굴한 왕릉에서 예술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 계층이 존재했던 사회를 반영하는 유물로 가득 찬 호화로운 무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 투구, 왕관, 장신구 등이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이 도시는 높이 8m, 너비 25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무역 및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창세기에 언급될 당시의 우르는 여전히 발달했고 번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아브람 시대에 그 도시가 절정에 이르렀고 그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때문에 데라와 그의 가족이 도시를 떠나려고 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대 도시의 인구 규모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브람 당시에 도시 우르의 인구를 추정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에아커당 약 20 채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집에 6명에서 10명 정도 살았다고 가정하면 에아커당 약 120명에서 200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르는 면적이 약 150 에아커였으므로, 이러한 인구 밀도를 적용하면 인구가 약 24,000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또한 사악한 이교도 관습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르는 달의 신 신(Sin), 또는 난나(Nan-na)라고도 불리는 신의 고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도시 이름이 그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도시 이름은 문자 그대로 '난나의 거처' 또는 '난나의 집을 의미합니다. 달의 신을 모신 주된 신전은 높이가 약 30미터에 달하는 지구라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란 또한 신 Sin 숭배의 주요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9 Then Abram and Nahor took wives: the name of Abram's wife was Sarai, and the name of Nahor's wife, Milcah, the daughter of Haran the father of Milcah and the father of Iscah.

30 But Sarai was barren; she had no child.

Moses turns now to describe a number of complicated relationships that came into existence within

this family. First, Abram married Sarai. Her name means “my princess.” She was named after “Sharrate” or Sarrat.” Depending upon which ancient sources you consult “Sarrat” was either the queen-wife of the moon god Sin, or another name for the goddess Ishtar. Ishtar was the Mesopotamian goddess of love, sex, fertility, war, and political power. She was worshipped from from at least the early 2nd millennium BC across Sumerian, Akkadian, Babylonian, and Assyrian cultures.

Later God would change Sarai's name to Sarah which means “princess.” Note that the “my” has been dropped. The name change came as part of the Abrahamic Covenant (Gen 17). The Talmud explains the reason why God subtly altered her name.

“Initially she was a princess only to her nation: 'My princess' (Sarai), but ultimately she became Sarah, a general term indicating that she was princess for the entire world.” (Berakhot 13a)

Sarai was actually Abrams half-sister. They shared the same father Terah, but had different mothers. Today for both ethical and health reasons we forbid marriage between close family members. And indeed God's Law would later impose a prohibition against family intermarriage. But at this time in human history it seems to have been a common practice and one that God permitted.

Second, Abram's brother Nahor married a woman named Milcah. Her name means “queen.” So Abram married a princess and Nahor married a queen. Milcah was the daughter of Haran which means that Nahor married his niece. Haran was the father of both Milcah and Iscah meaning they were sisters and their brother was Lot. Are you keeping up?

Milcah seems to have been a prominent and well regarded woman among her extended family. When Abraham was living in Beersheba, long after he had left the rest of the family in Mesopotamia, he received a report about his distant family members. Milcah is mentioned before Abraham's own brother, as becoming the mother of eight children (Gen 22:20–24).

We then read a very crucial detail that will go on to play a major role in Abram's story. Sarai was unable to produce children. She was barren. This was considered to be a judgement from God in the ancient world. As we shall discover later God would use this dilemma as a test for Abram's faith. The dilemma Abram faced was as follows. God had promised him that he would be the father of a great nation and yet his wife was barren. Would Abram trust God and have faith or not? We will discover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s we progress.

For a woman to be barren in the ancient world was the most devastating thing that could befall a wife. It's worth taking some time to point out at least some of the consequences that a woman in such a scenario might face.

At the very least a barren wife would be looked down upon and face considerable social stigma. Women in the ancient world were expected to produce offspring especially sons. A wife unable to do so would feel considerable shame. Her inability to do so might result in her being ostracised within the family and disrespected by the wider community.

Barren wives also faced the prospect of an unsettled, unhappy marriage and the security that marriage offered. There was no social security available for divorced or abandoned women. So women who could not produce children risked being “set aside,” divorced or replaced. The husband may choose, albeit reluctantly to take on a second wife who could produce an heir and continue the family line.

There was also the risk that the husband might consider the use of surrogacy in order to get an heir. It was socially acceptable at that time to use a servant or concubine for such a task. This obviously led to a weakening of the marriage bonds and placed the wife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finally we should not overlook that women who could not produce children faced an uncertain

old age. Once their husband had died who would be there to care or provide for them when they were too old to care for themselves.

So Sarai found herself in a desperate predicament. We shall in due time see how hers and Abram's story plays out.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말기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말기의 아버지이며 또 아스의 아버지라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모세는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복잡한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아브람 Abram 은 사래 Sarai 와 결혼했습니다. 사래는 "나의 공주 my princess"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샤리테 Sharrate" 또는 "사리트 Sarrat "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고대 문헌을 참고하느냐에 따라 "사리트"는 달의 신 신 Sin 의 왕비이거나 여신 이슈타르 Ishtar 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이슈타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랑, 성, 풍요, 전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기원전 2 천년 초부터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문화권에서 숭배되었습니다.

[illegible]

"처음에 그녀는 자기 나라에서만 공주였으므로 '나의 공주(사라)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의 공주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이름인 사라가 되었다" (베리컷 13a)

사라는 사실 아브람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데라가 같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윤리적, 건강상의 이유로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은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 당시에는 친척 간의 결혼이 흔한 관습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허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아브람의 형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왕"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공주와 결혼했고, 나홀은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므로 나홀은 조카와 결혼한 셈입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으므로, 그들은 자매였고, 롯이 그들의 오빠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밀가는 대가족 내에서 중요하고 존경받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가족들을 떠난 한참 후에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먼 친척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밀가가 여덟 명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의 형제보다 먼저 언급됩니다(창세기 22:20-24).

30 절에서 아브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내용이 언급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람이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할 수 없는 것은 아내로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닥칠 수 있는 결과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임인 아내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상당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특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컸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는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불임인 여성은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불임 아내는 불안정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이 주는 안정감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혼하거나 버림받은 여성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버려져거나", 이혼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서라도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 후계자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후계자를 얻기 위해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허녀나 첩을 대리모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결혼 관계를 약화시키고 아내를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불확실한 노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가 너무 늙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누가 돌보고 부양해 줄까요?

그러므로 사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사리와 아브람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볼 것입니다.

31 And Terah took his son Abram and his grandson Lot, the son of Haran, and his daughter-in-law Sarai, his son Abram's wife, and they went out with them from Ur of the Chaldeans to go to the land of Canaan; and they came to Haran and dwelt there.

We read here that Terah along with Abram, Sarai and Lot left Ur to travel to the land of Canaan. No reason is given here for them making this momentous decision. It was a 550-mile journey from Ur in Mesopotamia to the city of Haran. To give you some idea of that distance its about 325 miles from Seoul to Busan. So imagine packing up all your belongings, throwing them on the back of a camel, waving goodbye to all your friends and walking to Busan. No thanks I hear you say!

What made them pack up and leave the prosperous and sophisticated city that they had called home for so long? I'm glad you asked. It's a vital part of the story. It is important that we recognise that they did not make this move on a whim. It was not done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re were better opportunities or even job prospects elsewhere. It was done as an act of obedience.

Abram you see had received a message from God regarding this move. In Acts chapter 7 we read the following.

2 And he said, "Brethren and fathers, listen: The God of glory appeared to our father Abraham when he was in Mesopotamia, before he dwelt in Haran, 3 and said to him, 'Get out of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com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4 Then he came out of the land of the Chaldeans and dwelt in Haran. And from there, when his father was dead, He moved him to this land in which you now dwell. (Acts 7:2-4)

This account of course is taken from Stephen's address to the council headed by the high priest. He tells his audience that the Glory of God appeared to Abram and told him to leave Ur and travel to a land that He would show him. We know this to be the land of Canaan. So Abram presumably persuaded his father and the other family members to leave Ur and off they went. This means that Abram left out of obedience to God. He did not know what awaited them but he trusted that God would bless them.

Now the astute among you will note that they don't quite reach their destination. We are told that they stopped once they had reached Haran and dwelt there. Why Haran? Scholars speculate that perhaps Terah had lived in Haran previously. It was a place with which he was familiar and felt comfortable and at home.

There may however be another more sinister reason. Terah as we established in a previous sermon was a pagan. He worshipped the moon god Sin. The greatest centre for Sin's worship in the ancient world was the city of Ur. The second most important place of worship for this god was, you guessed it Haran.

So its quite likely that when Terah arrived in Haran he felt right at home religiously speaking. He had come from a city devoted to the worship of Sin and now found himself in another. So perhaps he said to Abram and the rest of the family, "Let's settle here. It's comfortable and pleasant. Better yet they worship the same gods we do."

What do we know about ancient Haran? Today the city is located in south-eastern Turkey close to the border with Syria. If you are ever in that region you can visit and see some impressive remains.

In Abram's day Haran was an important city in ancient Mesopotamia. It's importance was largely due to its location on the main trade route running between Babylonia and the Mediterranean. Traders and travellers moving between these two destinations naturally passed through the city. As a result it grew to be an important commercial centre. It was located on the Balikh River about eighty

miles upstream from its confluence with the Euphrates.

Excavations that have been carried out at Haran since the 1950s have revealed a city with a long history of occupation. The site spans roughly 100 hectares, with a central tell (hill) rising 20 meters above the plain. In Abraham's era, Haran was most likely fortified by mud-brick walls. In the centre of the settlement was a temple complex dedicated to the moon-god Sin. The temple which has only been partially excavated was a stepped structure. Most likely a small ziggurat, measuring about 30 meters square at its base. The city's layout comprised residential quarters, marketplaces, and administrative buildings, organized in a grid of streets. Houses were constructed of mud-brick and had plastered walls. They were surprisingly spacious. Typically having between 8-12 rooms sited around a central courtyard. This supports the position that Haran was a thriving prosperous place.

All of the archaeological findings support the biblical portrayal of Haran as being a wealthy city. This makes Abraham's departure a significant act of faith. He left the material comforts of Haran for an uncertain future in Canaan.

Let us close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데라가 아브람, 사래,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550 마일(약 887km)이나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거리를 따져 보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5 마일(약 522km) 정도입니다. 모든 짐을 싸서 낙타 등에 싣고 친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왜 오랫동안 살아왔던 번영하고 세련된 도시를 떠나기로 했을까요? 이것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은 기회나 일 자리를 기다리고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람은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 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2-4)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이끄는 공회에서 스데반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는 청중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여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그들은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란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하란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데라가 이전에 하란에 살았던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그곳이 익숙하고 편안하며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불길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데라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달의 신 신

Sin 을 숭배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Sin 숭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는 우르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따라서 데라는 하란에 도착했을 때 종교적 측면에서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신Sin 을 열렬하게 숭배하던 도시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와 비슷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브람과 가족들에게 "여기 정착하자. 평안하고 좋구나. 게다가 우리와 같은 신을 믿잖아"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도시 하란에 대해 살펴볼까요? 오늘날 하란은 터키 남동부, 시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한다면 인상적인 유적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 하란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비빌로니아와 지중해를 잇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오가는 상인과 여행자들은 하란을 통해서 지나갔고, 그 결과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Balikh River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50 년대부터 하란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오랜 기간 거주했던 도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유적지는 약 100 헥타르에 달하며, 중앙에는 평지보다 20 미터 높이 솟아 있는 언덕(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란은 진흙 벽돌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착지 중앙에는 달의 신 신Sin 에게 바쳐진 신전 단지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발굴된 이 유적은 계단식 구조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밑변이 약 30 미터 정사각형인 작은 지굴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시는 주거 지역, 시장, 행정 건물들이 격자형 거리에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진흙 벽돌로 지어졌고 벽에는 화반죽이 발라져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넓었으며, 보통 8~12 개의 방들이 중앙 안뜰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이는 하란이 번성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모든 고고학적 발견은 하란이 번성하던 도시였다는 성경의 묘사를 지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것이 중대한 믿음의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란의 물질적 안락함을 버리고 가나안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2 So the days of Terah were two hundred and five years, and Terah died in Haran.

Our passage for today closes by telling us about the death of Abram's father Terah. He died in Haran aged 205. He enjoyed a long life. He no doubt died with many adventures and experiences under his belt. He had learnt many things during his long life but sadly he had not learned the most important. Terah tragically died a pagan in a city devoted to the worship of a pagan god. He had never learned to put his faith and trust in the one true God. How tragic and how sobering.

We probably all have elderly relatives who have not yet placed thei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How desperately sad it would be if they died like Terah without properly hearing the gospel message. May all of us feel a conviction in this area. We all know someone who needs to hear the message of hope that comes only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Let us not be shy in sharing Him with them.

Following his death Abram would leave Haran and make his way to where God really wanted him. The land of Canaan.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this next week.

32 데라는 나이가 아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하란에서 205 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모험을 하고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긴 생애 동안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슬프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이교도 신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이교도인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연로한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데라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 이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데라가 죽은 후,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hree lessons from today's study.

오늘 연구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Move away from evil

You won't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 bible is full of wisdom and advice on how believers might lead a righteous life. A major part of this involves doing all we can to avoid evil. We are called to fear the Lord and turn away from wickedness. In some cases this even includes physically fleeing from evil. This means doing all we can to keep clear of evil places, people and ideologies. It's difficult to maintain purity and be focused on living a life that is pleasing to the Lord when we are immersed in an evil culture. People working down coal mines no matter how hard they try get coated in coal dust. In the same way it is hard for us not to be touched or tainted by the presence of evil.

In today's story we saw that Abram and his family were living in the city of Ur. A city wholly given over to wicked pagan practices. We can only imagine the horrors such worship entailed. Later they moved to Haran which was an equally wicked place. This of course wasn't God's plan. God had called Abram out of Ur and told him to go to the land of Canaan. God knew that this break was necessary. Abram had to move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from heathen surroundings so that he could establish a fuller relationship with God.

We exist within a world in which evil is ever present. It's impossible to ignore or avoid. But clearly there are practical things that we can do to keep away from evil. We should do our best to avoid places that promote ungodly behaviours. Christians for very obvious reasons should not be known as people who frequent casinos or strip clubs. But spiritually too we need to guard our hearts and minds. We need to make a move away from things or activities that God finds displeasing. It's so easy to allow evil images, thoughts and ideas to seep into our minds. Often we are not as discerning as we ought to be. We consume things that draw us away rather than towards the Lord. It is hard to give God the time and attention He deserves and desires when we are caught up in the evils of this world.

However when we resist these and turn instead towards God we can, just like with Abram enjoy a fulle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my call to all of us today is to be active and engaged in the battle against evil. Let us all be careful about where we let our minds and thoughts go. Let us all seek to be moving closer to the Lord and away from evil.

1 악을 멀리하십시오

성경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조언이 가득합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을 피해 직접 도망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즉, 악한 장소, 사람 그리고 사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악한 문화에 둘러싸인 채 순수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석탄 가루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악에

물들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도시 우르에 살았었습니다. 그 도시는 악한 이교도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숭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하란으로 이주했는데, 그곳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절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이교도 환경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악이 도처에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무시하거나 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악을 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불경건한 행동을 조장하는 장소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카지노나 스트립 클럽에 드나들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나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악한 영상, □□, 관념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탐닉합니다. 이 세상의 악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드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더욱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모두에게 악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악에서 멀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2 A failure to move

Abram is rightly recognised as a man who was obedient to God's call. When God spoke he listened and obeyed. But we also must note that initially he was only partially obedient. He made a sluggish start.

God told him to go to the land of Canaan. Instead of going there directly he settled in Haran. The reason for doing this is not explicitly stated. Perhaps life was good and comfortable in Haran. Maybe his father liked it there and stubbornly refused to move on. But the truth is that God's blessings lay in the promised land. In order to receive them it required Abram to give up the comfort and security of Haran and step out in faith. To get the good things God had planned he had to leave his old life behind.

The same is often true for us. God has good things planned for us but in order to receive them we must give up our old lives and move on. Just like Abram we are called to step out in faith and trust the Lord.

2 이동하지 못한 아브람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출발이 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란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의 아버지가 그곳이 좋아서 정착하자고 고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람은 하란의 안락함과 안전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옛 삶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옛 삶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 Learn from Abram

Abram later to be Abraham is rightly recognised as being a man of great faith. But we should note

that his assessment can only be made later in his life. It was only after years of testing and shaping by God that he became the mighty man of faith we think of today. As we saw in our sermon today and as we shall discover over the next few weeks he did not start off that way. At the point of his first call Abrams faith whilst real and genuine was meagre. He would go on to make many mistakes in his early walk with the Lord.

This means that he was just like us. At times, we are strong and committed in our faith. And at other times take a misstep and fall into error. God diligently worked in Abram to shape, mature, nurture, develop, and transform his character. Thankfully, He is doing the same with us. Taking the same kind of care. We, just like Abram are special and important to the Lord. He is preparing each one of us for what He has planned. All that is required from us is that we willingly and joyfully submit to Him. Let us learn from Abram and allow God to use us in mighty ways.

3 아브람에게서 배우십시오

훗날 아브라함 Abraham 이 된 아브람 Abram 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참 모습은 그의 삶 후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수년간 시험하고 다듬으신 후에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아브람의 믿음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었지만 미약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초기 시절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강하고 헌신적이지만 간혹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빚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무던히 일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주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본보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합시다.

